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최지혜*

〈차 례〉

1. 들어가며
2. 조선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본 장애 형상화
3. 사설 시조에 나타난 장애 형상화 양상
 - 1) 배제의 대상으로서의 장애
 - 2) 세태 반영의 수단으로서의 장애
4.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장애를 형상화한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문학 작품 속에 담긴 장애 형상화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 연구이다. 장애는 보통 정상적이지 않거나 온전하지 않은 것, 심지어 혐오스럽거나 공포스러운 것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가의 영역에서도 실명한 아이의 개안(開眼)을 간절히 드러내는 〈도천수대비가〉부터 장애로 인해 결혼을 못하는 노처녀의 사연이 담긴 가사 〈노처녀가〉 등의 작품에서 장애는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문제적 상황으로 등장한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시조의 영역에서도 장애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사설시조에 형상화된 장애 형상은 주로 부정적으로 수단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격적으로 사설시조 작품의 양상과 의미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시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선 시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독질자(篤疾者), 폐질자(廢疾者), 잔질자(殘疾者), 불성인(不成人) 등이 있었다. 『성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당시 장애인 은 사회적 약자로 여겨져 공동체적 돌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또한, 정약용의 『목민심서』나 박지원의 〈발승암기(髮僧菴記)〉를 통해서도 당시 조선 사회, 특히 양반층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왜곡된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평시조에서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를 수단화했다더라도 부정적이거나 편취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시조에서는 여러 부정적 장애의 형상들이 등장한다. 배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또는 세태 반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나아가 장애 형상을 웃음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 장애, 사실시조, 웃음, 배척, 세태 반영

1. 들어가며

대략 십수 년 전 방영된 TV 프로그램¹⁾에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주인공 남성은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양손을 이용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운전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운전하는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남성의 사연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화제가 됐다. 그 후 한참이 지난 뒤인 2020년경, 남성을 찾아 근황을 묻는 프로그램²⁾이 재차 제작되었다. 주인공은 여전히 혼자 능숙하게 손으로 운전을 하며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 사이 장애의 악화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 장애의 정도가 훨씬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매몰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

1) 〈세상에 이런 일이〉 545회, 『SBS』, 2009.06.11.

<https://programs.sbs.co.kr/culture/whatonearth/vod/55716/22000002883>, 접속일자: 2025.01.01.

2) 〈(근황공개) 없드려서 운전하던 슈퍼맨 김인호 씨, 13년 후 근황은?〉, 『우와한 비디오』, 2022.03.19. <https://www.youtube.com/watch?v=5xP5f8YY89U>, 접속일자: 2026.01.01.

다는 점이다. “시력 나빠서 안경 쓰는 사람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탄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발화와 함께한 그의 해맑은 얼굴은 장애를 극복한 대단한 인간 승리의 한 장면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단순하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감동 실화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는 정상성의 관점에서 장애를 이미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불운전한 존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정상성의 범주에 가까워진 서사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사회 속에서 완전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부정적이며 극복 대상인 것으로 정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³⁾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애는 긴 시간,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통 정상적이지 않은 것, 온전하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심지어 혐오스럽거나 공포스러운 것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문학 작품 속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심청전〉의 심봉사는 자립적으로 삶을 꾸리지 못하고 장애로 인해 딸에게 의탁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봉산탈춤〉의 양반 삼형제는 양반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기 위해 언청이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장애를 부정적으로 수단화한다. 현대문학도 예외는 아니다. 염상섭의 〈수난시대〉에 등장하는 부자(父子)는 역사의 비극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으로서 한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존재로 설정되고, 서양문학으로 넘어가 〈미녀와 야수〉에 등장하는 야수는 단순히 미추(美醜)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존재로

3) 검색어 [장애],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6310&searchKeywordTo=3, 접속일자: 2026.01.03.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위의 몇 가지 예시만 떠올려봐도 장애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 작품 속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요소로 그려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가의 영역에서는 천수보살에게 눈 뜨기[希明]을 간절히 비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향가 <도천수대비가>에서부터 장애로 인해 결혼을 못 하는 노처녀의 사연이 담긴 가사 <노처녀가>⁴⁾ 등의 작품을 떠올릴 수 있다. 장애에 대한 배척이나 혐오의 분위기가 읽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천수대비가>의 시적 화자는 맹안(盲眼)을 정상이 아닌 것, 불완전한 것 등으로 보고 부처에게 눈을 달라고 간절히 바랐다는 점에서 장애를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고 얇은 얼굴을 가지고 한 눈 멀고, 한 귀 먹고, 한 팔과 다리가 멀쩡치 않은 노처녀가 등장하는 <노처녀가> 역시 주인공 인물이 간절히 바라는 혼인을 방해하는 문제적 요소로 장애가 설정되어 있다.

이제 본고의 논의 대상인 시조의 영역을 살펴보자. 시조 중에는 소경, 병어리, 귀머거리 등 장애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특히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 형상화는 유독 부정적으로 수단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의 논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장애 인식과 형상화의 맥락을 살펴보고, 이어 사설시조 개별 작품에 나타난 장애 형상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장애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장애 범주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학 수준일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다.⁵⁾ 특히 장애와 관련한 인식은 노화나 질병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4) <노처녀가>라는 제목의 작품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통 <노처녀가1>, <노처녀가2>로 구분하기도 하는 두 작품 중 본고에서 언급한 작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처녀가 등장하는 『삼설기』본<노처녀가2>이다.

경계가 모호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여 회복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라고 칭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기능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난 경우에는 장애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의 범주는 특정 맥락이나 요인에 따라 달리 설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화나 질병의 범주까지를 장애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논의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화나 질병을 포함하여 회복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신 신체적 결손이 드러난 작품으로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장애’ 자체에 초점을 둔 시가 연구로는 이영태와 박상영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 자체에 초점을 맞춰 사설시조 작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⁶⁾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사설시조에 나타난 신체적 결함과 그 회극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도⁷⁾ 장애를 형상화한 개별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고전문학의 갈래로 확장해보면 연구의 성과가 조금 더 풍부해진다. 고전문학 속 장애 담론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⁸⁾ 문인들의 작품에 형상화된 장애 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는 연구,⁹⁾ 장애를 가진 인물이 등장

5) 채하나, 「고전 서사 속 장애 담론의 비장애중심성 탐색<한후통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6, 한국고소설학회, 2023, 151쪽.

6) 이영태, 「불구동물 등장 시조와 “靑개고리 腹疾하여 주근 날 밤~”의 해석」, 『시조학논총』 30, 한국시조학회, 2009; 박상영,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2018.

7) 이형태, 「사설시조에 발현된 회극성의 육체적 표상들」, 『한국시가문화연구』 33, 한국고시기문학회, 2014.

8) 박희병, 「“병신”에의 시산: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문학동네, 2005.

9) 강혜중, 「신체장애에 대한 조선 후기 문인의 인식과 형상화」, 『한국문학논총』 80, 한국문학회, 2018.

하는 고전 산문 작품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¹⁰⁾ 돌봄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본 연구¹¹⁾ 등 나름의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연구의 절대적인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기에 비해 장애 관련 연구에 진척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나아가 본고는 사실시조 작품을 대상으로 그 안에 드러난 장애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¹²⁾ 주지하다시피 장애에 대한 정의나 인식은 특정 맥락 속에서 그 기준을 달리한다. 따라서 2장은 조선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장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장애 형상은 어떻게 살필 수 있는지를 보고, 이를 토대로 3장에서 사실시조 속에 나타난 장애의 형상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장애가 형상화된 시조 작품의 문학적 의미를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0) 고전서사의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구선정, 「〈한후룡전〉·〈유화기연〉·〈영이록〉에 나타난 ‘장애인’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42, 고소설학회, 2016; 「장애인 간 연대를 통한 치유 -〈한후룡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근대전환기 장애인(障礙人)의 재현 양상과 시선 고찰 -〈병인간친회록(病人懇親會錄)〉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3, 이화어문학회, 2024; 신호림,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이경하,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심청의 효 및 장애 관념 비판: 동화 〈청아, 청아, 눈을 떠라〉(2006)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3; 제하나 (2023), 앞의 논문.

11) 변재원, 「치유를 바라는 마음-심청전에 관한 장애학적 접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이해진, 「판소리 문학 속 공동체 돌봄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12) 본고의 논의 대상은 『고시조대전』(김홍규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에서 ‘장애’ 양상이 드러난 작품을 추출한 것이다. 작품에 표기된 작품번호는 『고시조대전』의 것을 따른 것이다.

2. 조선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본 장애 형상화

조선 시대에는 ‘장애’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조선 시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잔질자(殘疾者), 폐질자(廢疾者), 독질자(篤疾者), 불성인(不成人), 병인(病人) 등이 있었다.¹³⁾ 아래 예문은 이러한 용어를 통해 당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헌 기록들이다.

사지가 두 군데 잘리고 두 눈이 먼 것과 같은 따위의 독질인(篤疾人), 사지가 한 군데 잘리고 한쪽 눈이 먼 것과 같은 따위의 폐질인(廢疾人)들은 모두 호소할 데 없는 백성으로 남의 도움을 기다려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¹⁴⁾ (밑줄 인용자)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및 독질(篤疾)이나 폐질(廢疾)인 사람은 빈궁

13) 잔질자, 폐질자, 독질자는 위중한 병 등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는 용어이지만, 결론적으로 신체 기능이 훼손되어 회복이 어려운 병증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장애의 범주에 속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병든 몸이라는 의미의 총칭어로 불구자(不具者), 병신(病身)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병신’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를 거치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비속어로 격하되었다.

14) “及篤疾之人如折二肢瞎二目之類 廢疾之人如折一肢瞎一目之類 此皆無告之民待人而養者.” 『대명률부례(大明律集說附例)』 권3 24장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61A_0050_010_0150&solrQ=query%E2%80%A0%EC%82%AC%EC%A7%80%EA%B0%80%20%EB%91%90%20%EA%B5%B0%EB%8D%B0%20%EC%9E%98%EB%A6%AC%EA%B3%A0%20%EB%91%90%20%EB%88%88%EC%9D%B4%20%EB%A8%BC%20%EA%B2%83%EA%B3%BC%20%EA%B0%99%EC%9D%80%20%EB%94%B0%EC%9C%84%EC%9D%98
 \$solr_sortField% 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solr_solrId%E2%80%A0BD_ITKC_BT_1461A_0050_010_0150 접속일자: 2026.01.05.

하고 의지할 친속이 없어 스스로 살 수 없으니, 소재지의 관사에서 수양(收養)해야 한다. 수양하지 않으면 장 60이다.¹⁵⁾ (밑줄-인용자)

위 예문들은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조선의 법률 조항들이다. 첫 번째 예문을 보면 당시 조선에서 폐질자는 시각이나 청각, 또는 팔이나 다리 중 한 군데 이상 장애를 입은 자를 가리키는 용어였고, 독질자는 폐질자보다 정도가 더 심한, 사지가 두 군데 잘리고 두 눈이 먼 것과 같은 정도의 중증 장애를 칭하는 용어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이 예문에서 중요하게

15) “凡鰥、寡、孤、獨及篤、廢之人，貧窮無親屬倚倚不能自存，所在官司應收養，而不收養者，杖六十”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권4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61A_0050_010_0150&solrQ=query%E2%80%A0%E7%AF%A4%E7%96%BE%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55\\$solr_curPos%E2%80%A07\\$solr_solrId%E2%80%A0BD_ITKC_BT_1461A_0050_010_0150&viewSync=KP](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61A_0050_010_0150&solrQ=query%E2%80%A0%E7%AF%A4%E7%96%BE%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55$solr_curPos%E2%80%A07$solr_solrId%E2%80%A0BD_ITKC_BT_1461A_0050_010_0150&viewSync=KP) 접속일자: 2026.01.15.

16) 해당 예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조선 시대 장애를 가리키는 용어 중 ‘잔질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가 없거나 몸에 큰 혹을 가지고 있는 등의 폐질에서부터 좀더 중증의 장애인 독질까지를 두루 가르키는, 장애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대명률부례>의 예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잔질자는 한쪽 눈이 멀거나, 두 귀가 멀거나, 손가락 두 개가 없거나, 발가락 두 개가 없거나, 손이나 발에 엄지가 없거나, 아래가 습하거나, 목에 큰 혹이 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병어리·귀머거리·소경인 것도 잔질이다.(殘疾者 一目盲 兩耳聾 手無二指 足無二指 手足無大指 下濕 大瘻腫卽項瘤也 癩呆啞聾瞎本於有生之初者 亦爲殘疾也)” 『大明律附例(上)』 166쪽.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61A_0070_010_0010&solrQ=query%E2%80%A0%E6%AE%98%E7%96%BE%E8%80%85%20%E4%B8%80%E7%9B%AE%E7%9B%B2%20%E5%85%A9%E8%80%B3%E8%81%BE%20%E6%89%8B%E7%84%A1%E4%BA%8C%E6%8C%87\\$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solr_solrId%E2%80%A0BD_ITKC_BT_1461A_0070](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461A_0070_010_0010&solrQ=query%E2%80%A0%E6%AE%98%E7%96%BE%E8%80%85%20%E4%B8%80%E7%9B%AE%E7%9B%B2%20%E5%85%A9%E8%80%B3%E8%81%BE%20%E6%89%8B%E7%84%A1%E4%BA%8C%E6%8C%87$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solr_solrId%E2%80%A0BD_ITKC_BT_1461A_0070)

볼 만한 지점은 장애인을 ‘호소할 데 없는’, ‘남의 도움을 기다려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연민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은 두 번째 예문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독질이나 폐질을 지닌 장애인을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상정하고 수양(收養), 즉 공적 보살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수양을 하지 않을 경우 장 60대의 형벌을 내리는 엄격한 법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위 두 예문을 살펴보면 조선 시대에는 차이로서의 장애는 인정하여 돌봄의 대상으로 삼되, 그것이 차별로서의 장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침들이 단순한 조항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다음 예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맹인(盲人) 윤효온(尹孝溫)이 상언(上言)하여 이천(利川)의 시골 아전 장적(張積)이 면포(綿布)를 빌려가고 갚지 않음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문왕(文王)이 어진 정사를 베풀 때에, 반드시 먼저 환과고독(鰥寡孤獨) 부터 돌보았다. 맹인은 불성인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구제해야 하거늘, 만약 그 호소한 바가 사실이라면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징수하여 주도록 하라.”¹⁷⁾ (밑줄-인용자)

《주례(周禮)》 보식(保息) 정책 다섯 번째가 관질(寬疾)이다. 정현(鄭玄)은, “요즈음 굶사등이는 일할 수 없어서 군졸로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다.” - 한(漢)나라 법이다. -하였다. 너그럽게 한다[寬]는 것은 조세와 요역을 관대하게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귀머거리나 고지는 자기의 힘으로 생계를 세우는 데

_010_0010 접속일자: 2026.01.05.

17) 盲人尹孝溫上言訴利川鄉吏張積貸綿布不償。傳曰：“昔文王發政施仁，必先斯鰥寡孤獨，瞽者不成人也，所當矜恤，若所訴實，則其令漢城府徵給。” 『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17일.

https://sillok.history.go.kr/id/wia_12212017_004#footnote_1, 접속일자: 2026.01.07.

는 방해될 것이 없고, 장님은 점을 치며, 절름발이는 그물을 뜨니 또한 자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폐질자와 독질자만은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요즘 수령들은 역세고 사나워 인자하지 못하다. 시골 아낙네가 젓먹이를 안고 관청 뜰에 와서 호소하기를, “이 애가 아궁이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어 지금은 손발을 못쓰고 있으니, 새로 차임(差任)하는 선무 군관(選武軍官)에서 관대한 면제 처분을 받기를 빕니다.” 하면, 수령은 말하기를, “밭 가운데 허수아비보다는 낫지 않느냐.”하고, 들어주지 않는다. 아, 수령으로서 이와 같고도 백성들의 수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장님·병어리·절름발이·고자 같은 자들은 장부에 기록해서는 안 되고, 요역에 징발해도 안 될 것이다.¹⁸⁾ (밑줄-인용자)

첫 번째 예문은 장애를 뜻하는 또 다른 용어인 불성인(不成人)의 용례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처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성종실록』의 기록이다. 당시 불성인은 불구자의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였는데, 이 표현은 선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후천적 질병으로 몸이 불편했던 사람까지를 포함하여 말 그대로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다.¹⁹⁾

해당 기사에는 맹인 윤희운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지방 아전

18) 《周禮》保息之政，五曰寬疾。鄭玄云：“若今癯不可事不算卒。”【漢法也】寬也者，寬免其征役也。啞者闌者，不妨食力，瞽者賣筮，跛者結網，亦或有自給者，惟其篤廢者，在所顧恤。今之牧者，強戾不仁。村婦抱乳孩訴于庭曰：“此兒入于竈，今已癯矣，新差選武軍官，乞蒙寬免。”牧曰：“不猶愈於田中之草偶乎？”不聽。嗚呼，牧而如此，尚可以爲牧乎！凡瞽者啞者兀者闌者，不可簽也，不可徭也。『목민심서』 애민(愛民) 6條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88A_050_070_0010&solrQ=query%2%80%A0%E5%BB%A2%E7%96%BE\\$solr_sortField%2%80%A0\\$solr_sortOrder%2%80%A0\\$solr_secId%2%80%A0BT_AA\\$solr_toalCount%2%80%A0308\\$solr_curPos%2%80%A067\\$solr_solrId%2%80%A0GS_ITKC_BT_1288A_0050_070_0010&viewSync2=KP](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88A_050_070_0010&solrQ=query%2%80%A0%E5%BB%A2%E7%96%BE$solr_sortField%2%80%A0$solr_sortOrder%2%80%A0$solr_secId%2%80%A0BT_AA$solr_toalCount%2%80%A0308$solr_curPos%2%80%A067$solr_solrId%2%80%A0GS_ITKC_BT_1288A_0050_070_0010&viewSync2=KP), 접속일자: 2026.01.08.

19) 박상영(2018), 앞의 논문, 135쪽 참고.

이 면포를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는 윤효온의 호소에 성종은 그가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구제해야’ 하는 존재라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해결할 것을 명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윤효온을 사회적 약자로 여겨 공동체적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면 장애와 관련한 법률 조항의 내용, 즉 장애인에 관련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형식적인 지침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처우는 정약용의 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일부이다. 위정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균역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권고하고 있는 위 글은 조선시대 장애에 대한 공적 처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다. 정약용은 장님이나 병어리, 절름발이, 고자와 같은 사람들, 즉 장애인의 경우 균역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상을 입어 손발을 못 쓰게 된 아이의 균역을 면제해 달라는 시골 아낙의 호소에 ‘밭 가운데 허수아비보다야 낫지 않’냐며 가혹한 거절의 말을 하는 수령의 사례를 들어 이런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호한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용문에 나타난 정약용의 태도는 당시 목민관들이 어떤 장애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양반층의 작품에 드러난 장애 형상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당시 사대부 작품에 형상화된 장애는 주제 구현을 위해 수단화되기는 하지만 부정적이거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비판하고²⁰⁾ 장애를 “가치 있는 차이로 인식”²¹⁾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

20) 강혜중(2018), 앞의 논문, 66쪽 참고.

21) 수잔 웬델, 김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21, 35쪽, 134쪽 참고.

는데, 이는 다음 박지원의 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까마귀는 새마다 검은 줄 밧고	烏信百鳥黑
해오리는 딴 새가 희지 않음을 의아해하네	驚訝他不白
검은 놈 흰 놈이 저마다 옳다 여기니	白黑各自是
하늘도 그 송사에 싫증나겠군	天應厭訟獄
<u>사람은 다 두 눈이 달려 있지만</u>	人皆兩目俱
<u>애꾸는 눈 하나로도 능히 보는걸</u>	瞶一目亦觀
<u>어찌 꼭 쌍이라야 밝다 하리오</u>	何必雙後明
(중략)	
소경도 검은 것은 볼 수 있는데	瞽者亦觀黑
김군은 불구의 몸으로	金君廢疾人
부처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네	依佛以存身
돈 쌓아 놓고 쓸 줄 모른다면	積錢若不用
비렁뱅이 가난과 뭐가 다르리	何異丐者貧
<u>중생은 다 제멋으로 사는 법</u>	衆生各自得
(후략) ²²⁾ (밑줄-인용자)	

위 기록은 박지원의 『연암집』(발승암기(髮僧菴記))에 삽입된 계(偈) 중 일부이다. <발승암기>는 금강산을 유람하며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김홍연의 기행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박지원이 그의 인생 내력을

22) 박지원, <발승암기(髮僧菴記)>, 『연암집(燕巖集)』 권1.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의 번역을 인용하였음.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68A_0010_010_0230&solrQ=query%E2%80%A0%EB%B0%9C%EC%8A%B9%EC%95%94%EA%B8%B0\\$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olr_sortOrder%E2%80%A0\\$olr_secId%E2%80%A0BT_AA\\$olr_toalCount%E2%80%A02\\$olr_curPos%E2%80%A00\\$olr_solrId%E2%80%A0GS_ITKC_BT_0568A_0010_010_0230](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68A_0010_010_0230&solrQ=query%E2%80%A0%EB%B0%9C%EC%8A%B9%EC%95%94%EA%B8%B0$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olr_sortOrder%E2%80%A0$olr_secId%E2%80%A0BT_AA$olr_toalCount%E2%80%A02$olr_curPos%E2%80%A00$olr_solrId%E2%80%A0GS_ITKC_BT_0568A_0010_010_0230), 접속일자: 2026.01.03.

이해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김홍연은 젊은 시절 왈짜로서 호방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나 늘그막에는 악질(惡疾)을 앓은 탓에 한 눈을 잃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²³⁾ 〈발승암기〉의 기록을 보면 김홍연은 한 눈이 멀어 장애인이 된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표현한 반면 그의 삶을 이해한 박지원은 시를 통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위 인용문의 초반에 제시된 ‘까마귀는 모든 새가 검다고 믿고, 해오리는 다른 새가 하얗지 않음을 의아해’ 한다는 구절은 차이로서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세태를 꼬집는 표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하는 끝이어서 ‘애꾸는 눈 하나로도 능히’ 본다는 말로 김홍연의 장애를 차별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박지원은 ‘꼭 쌍이어야만 밝다 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중생은 다 제멋대로 사는 법’이라고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준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왜곡된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당시 양반의 장애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병이 많아 벼슬 관둔 건 무릉과 같다 할까	多病免官如茂陵
문원처럼 소갈증 앓으며 선승처럼 몰입했지	文園患渴學禪凝
십 년 사권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이가 적어	十年傾蓋少青眼
만 권의 책 팔배개하고 오직 등잔불 대했다오	萬卷曲肱唯碧燈
사람을 단절한 채 벽에는 먼지 낀 거문고만	壁掛塵絃人斷絕

23) 김택영, 〈김홍연전(金弘淵傳)〉, 『소호당문집(韶濩堂文集)』 권9 참고.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658A_0160_030_0050&solrQ=query%E2%80%A0%EA%B9%80%ED%99%8D%EC%97%B0\\$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4\\$solr_curPos%E2%80%A02\\$solr_solrId%E2%80%A0GS_ITKC_BT_0658A_0160_030_0050](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658A_0160_030_0050&solrQ=query%E2%80%A0%EA%B9%80%ED%99%8D%EC%97%B0$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4$solr_curPos%E2%80%A02$solr_solrId%E2%80%A0GS_ITKC_BT_0658A_0160_030_0050), 접속일자: 2026.01.05.

눈이 층층이 쌓인 사립문은 산이 엿볼 따름	山窺柴戶雪稜層
전나귀 이끼 길 밟고 찾아가리니	蹇驢踏破莓苔路
조만간 서로 손잡고 바가지로 마셔 뵈시다	早晚相携酌瘦藤 ²⁴⁾
(밑줄-인용자)	

위 예문은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선 전기 문신 심의가 지인이었던 홍우암을 향해 쓴 한시이다. 심의는 좌의정의 벼슬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갑자사화(甲子士禍)·기묘사화(己卯士禍)·을사사화(乙巳士禍) 등을 겪으며 한평생 정쟁 속에서 부침이 큰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이 작품에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시골로 물러 나온 심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이때 ‘다리를 저는 나귀(蹇驢)’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소갈증으로 벼슬을 관두었던 한나라의 사마상여처럼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자신의 늙고 병든 처지를 비유한 소재로도 읽어볼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전원에서 느긋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상황을 전나귀를 활용해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비는 전나귀 형상이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해 수단화된 소재이기는 하나 장애를 불완전한 것으로 그려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아가 장애를 희화화하려는 의도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전나귀는 양반으로서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나귀’ 형상은 평시조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의

24) 심의, <홍우암에게 선물로 주다(投贈洪寓菴)>, 『대관재난고(大觀齋亂藁)』 권2,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의 번역을 인용하였음.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105A_0030_050_0160&solrQ=query%E2%80%A0%E8%B9%87%E9%A9%A2\\$sortField%E2%80%A0\\$sortOrder%E2%80%A0\\$secId%E2%80%A0BT_AA\\$toalCount%E2%80%A0144\\$curPos%E2%80%A012\\$solr_solid%E2%80%A0BD_ITKC_BT_0105A_0030_050_0160](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105A_0030_050_0160&solrQ=query%E2%80%A0%E8%B9%87%E9%A9%A2$sortField%E2%80%A0$sortOrder%E2%80%A0$secId%E2%80%A0BT_AA$toalCount%E2%80%A0144$curPos%E2%80%A012$solr_solid%E2%80%A0BD_ITKC_BT_0105A_0030_050_0160), 접속일자: 2026.01.08.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전나귀 바삐 몰아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보리 피 구즌 메에 찬물이 아주 없다
 아이야 배 내어 띄워라 그물 놓아 보리라 (#4288)

위 예문은 나위소의 시조 〈강호구가(江湖九歌)〉 중 한 수이다. 작품 속 화자는 전원에 은거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전나귀는 그런 화자의 공간에 찾아오는 손님이 타고 오는 수단이다. 손님은 전나귀를 바삐 몰아 온다고 하지만 다리 저는 나귀가 속도가 날 리가 없으니 화자의 공간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질 무렵이 된다. 즉, 이 작품 속 전나귀는 전가의 공간으로 오기 위한, 소박하고 느긋한 처사로서의 삶의 지향을 보여주기 위한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 형상화 양상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시대에 장애(인)는 공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양반들의 개별 작품 속에서도 장애를 부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희화화한 표현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는 장애 인식도 이와 같았을까? 특히 사설시조와 같이 연행 중심의 영역에서 장애는 어떻게 내재화되어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사설시조에 드러난 장애의 형상화 양상을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설시조 속 장애 형상화를 ‘배제의 대상으로서의 장애’, ‘세태 반영의 수단으로서의 장애’로 나누어 읽어내고자 한다. 물론 시조에 나타난 양상을 칼로 자르듯 반듯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이거나 주제, 기능에 초점을 맞춰 작품 속에 드러난

장애 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배제의 대상으로서의 장애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신체적 장애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나 상징물로서 기능한다. 장애를 가진 인물이나 대상은 보편성과 개별적 특성을 지닌 주체로 구성되기보다는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²⁵⁾ 이런 경우 장애는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장애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아 독자의 반응을 의도하는 사설시조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九仙王 道糕라도 안이 먹는 날을
 冷水에 붓춘 糝旨 煎餅을 먹으라 지근 絶代 佳人도 안이 결연하는 날을
 코 엽쓸 년 결연하라고 지근거리는다
 하늘히 定하신 配匹 맞기야 것을쎄 불 쏘 이시랴 (#414)

술이라 하면 물 틀 혀듯 하고 飲食이라 하면 현 물 등에 서리황(석류황) 다와
 兩水腫다리 잡조지 팔에 흘기눈 안팎 솥장이 고자 남진을 만석중이라 안쳐
 두고 보랴
 門맞기 통메 장스 네나 즈고 니거라 (#2866)

첫 번째 작품은 ‘하늘이 정한 배필’ 이외에는 거들떠보지 않겠노라는 시적 화자의 다짐이 담긴 사설시조다. 초·중장에서 화자는 자신의 다짐을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 여러 비교 대상들을 이용하고 있다. 먼저 초장의 ‘구선왕도고(九仙王道糕)’는 아홉가지 재료를 사용해 만든 약이(藥餌)성 떡으로, 맛과 보양 효능을 모두 갖추어 귀한 음식일 수밖에 없다. 중장의

25) 장영희, 「은유로서의 신체장애: 미국문학의 경우」, 『미국학논집』 33(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1, 199~200쪽 참고.

‘절대가인(絶代佳人)’ 역시 아름다운 용모로 사람들에게 긍정과 흠모의 존재로 인식되는 소재이다. 반면 이들과 대조되는 ‘비지전병(枇旨煎餅)’과 ‘코 없을 년’은 화자가 정해놓은 긍정의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배제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비지전병은 흔한 콩 찌꺼기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구선왕도고와 비교해보면 재료의 질적 측면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 두 소재의 위상을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작품 속 비지전병이 냉수에 부친 것이라는 데 있다.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내어야 할 전병을 냉수에 부쳐 맛도 질도 모두 형편없는, 음식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설정은 ‘코 없을 년’에도 그대로 대입되는데, 작품 속 코 없을 년은 단순히 미추(美醜)의 대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가인과 비교하여 한 인간으로서 온전치 못한, 그래서 혼인 대상으로는 고려의 가치도 없는 존재로 등장한다.

즉, 이 작품의 화자는 구선왕도고와 절대가인을 더 우월한 것으로 표현하고, 냉수에 부친 비지전병과 코 없을 년을 열등한 것으로 구분하는 전략을 통해 하늘이 정해놓은 배필 외에는 거들떠보지 않겠노라는 자신의 의도를 강조한다. 이 작품의 문면에는 ‘코 없을 년’이 배척받을 만한 어떤 요인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코가 없다는 신체적 결함 그 자체로 대상은 철저하게 배제와 멸시의 대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두 번째 시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작품에는 여러 장애 병증을 가진 남편이 등장하는데, 시적 화자는 남편의 장애를 줄줄이 열거하며 그를 ‘만석중’과 같은 존재로 폄하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남편이 지닌 신체적 결함은 매우 복잡적이다. 수종(水腫)으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한 하체, 농기구 부속에 빚대어질 만큼 기형적으로 짧은 팔, 초점이 어긋난 사시(斜視), 가슴과 등이 돌출된 기형에 이르기까지 전신에 걸친 심각한 장애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화자의 남편은 이러한 외형적 결함뿐만

아니라 성 기능 상실까지 동반한 인물로 묘사된다.

앞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에 장애인에 대한 공적 인식은 연민의 대상, 사회적 약자, 그래서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장애를 지닌 남편은 시적 화자에게 돌봄의 대상, 연민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배척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시적 화자가 남편을 사람이 아닌 만석중과 같은 사물로 표현하거나 종장에서 통메 장사에게 차라리 ‘니가 자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⁶⁾

바둑바둑 뒤엎거진 놈아 제발 비자 내게 너가의란 서지 마라
 눈 큰 준치 허리 긴 갈치 두루쳐 메오기 촛촌 가물치 부리 긴 공치 넘적흔
 가잠이 등 곱은 시오 결네 만흔 곤장이 그물만 너겨 풀풀 썬여 다 다라나는디
 열업시 삼긴 오증어 등기논고야
 眞實로 너곳 와 서시 양이면 고기 못잡아 大事 | 러라 (#1765)

얼구 금구 금구 얼구 줄육 준오 사오씩 것구 쟁이 밋살 것구 우박 마진 지덤
 이 것구 석쇠 망티 버레 머근 삼넙 것구 연竹즌 자板 것구 下米즌 명석 것구
 大邱監營 진상 오는 쓸병 것치 얼구 勤政殿 鐵網것치 얼근 중놈아 세니로 나
 리지 마라

공지 낙지 낙지 공지 두루쳐 먹이 친친 가물치 살진 돼미 허리 긴 갈치 눈
 큰 준치 크 큰 장디 씨 미는 송사리 슈 미는 곤장이 향자지 등 고분 시우 열읍신
 오징어 너를 보구 나를 보구 그물 베리만 여겨 혈혈 뒤여 너머 가는 구나
 우리도 山中의 있는 고로 세니를 좇차 (#3283)

26) 선행 연구에서는 초장에 등장하는 남편의 비정상적 행태와 중장에 드러나는 신체적 결합의 연관 관계를 웃음 유발과 연결하기도 한다. 술은 물 마시듯 하면서 음식은 거부하는 남편의 태도를 일종의 정신적 결합으로 보고, 이러한 정신적 결합과 비정상적인 신체의 결부를 통해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한다고 본 것이다. (이형대(2014), 앞의 논문, 270쪽.)

고전시가 작품 속 혼한 장애 형상 중 하나는 ‘곰보’다. 천연두나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얼굴에 회복 불가능한 흉이 생긴 상태를 곰보라 이르는 데, 곰보가 형상화된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들은 배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두 작품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보여주는 시조이다. 엄밀하게 따져 얼굴에 생긴 흉으로 인해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곰보를 장애 형상으로 분류해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곰보 형상은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장애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하다.

첫 번째 작품에서 곰보에 대한 인식은 초장의 ‘넷가에 서 있지 말라’는 시적 화자의 주문에서 일찌감치 드러난다. 이러한 주문의 원인은 중장과 종장의 내용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곰보인 시적 대상이 넷가에 서 있으면 엷은 얼굴을 그물로 착각한 물고기들이 모두 도망가 고기를 못 잡으니 큰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적 화자는 ‘제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곰보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력하게 드러낸다. 여기에 더하여 중장에 제시된 준치, 갈치, 메기, 가물치, 쫘치, 가자미, 등 굽은 새우 등 어류의 나열은 곰보에 대한 배제를 심화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곰보에 대한 외모 묘사가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 초장에 등장하는 곰보의 얼굴 형상은 골뎀놀이, 그물 밑바닥, 우박 맞아 엉망이 된 잣더미, 석쇠, 망태, 벌레 먹은 삼잎, 재판, 명석, 철망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앞 작품에서 ‘바둑바둑 뒤얼거진 놈’으로만 제시되었던 곰보 형상이 더욱 구체화되며 배제의 속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하여 초장에서 곰보 자국을 그물에 연결한 비유는 그 엉뚱함으로 인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면서²⁷⁾ 동시에 장애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27) 이형태(2014), 앞의 논문, 278쪽 참고.

일종의 조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배제의 비극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종장에 등장하는 ‘세 내를 좇아’라는 표현이다. 장애를 가진 시적 대상은 이러한 표현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취급되는 세상 속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도 산중에 있는고로’, 즉 우리도 같은 인간이니 시냇물에 합류하여 같이 살아보겠다는 대상의 발화는 정상과 비정상의 영역 사이에 놓인, 극복하기 어려운 간극을 오히려 극명하게 보여주며 장애에 대한 배제를 확인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곱보를 비롯한 장애의 모습은 문학 작품 속에서 배척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러한 면은 곱보를 일컫는 별명으로 ‘괴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시조²⁸⁾나 근대 잡지의 기록²⁹⁾을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이러한 형상화를 통해 작품에 드러난 배제의 시선은 독자들 역시 신체적 결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더 나아가 차별적인 장애 배제 인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28) 내얼굴 검고 엷기 本是 안이 검고 엷에 / 江南國 大宛國으로 열두 바다 건너오신 작은 손님 큰 손님에 뜰이 紅疫피약이 後덕침에 自然이 검고 엷에 / 그러나 閻氏니 房구식의 怪石삼아 두고 보옵소 (#971) (밑줄-인용자)

29) 이름 조흔 花隱會 / 渡江魚驚網 若非牛千葉 / 登山鳥恟羅 疑是馬蜂家
이것은 전에 엷던 險口家가 얼골 얼근 이를 조롱한 시였다. 얼근이의 별명은 자來로 여러 가지가 잇서서 혹은 곱보 혹은 꿀병이라 하였고 또 근래에는 가다방이니 鏡破 선생이니 하는 별명까지 생겼다. 그러나 이번 이대회에서는 특히 얼근이의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과거 불명예의 별명을 다 업새 버리고 새로 花隱선생이라 아호를 드리게 되었다.(얼근이를 怪石이라고도 하는데 怪石이라 하기는 너무 미안하고 露 屑이닛가 괴석이 화초밭에 만히 잇는 것을 의미하여 특히 花隱이라 함이다). 『별건곤』 4, 1927.02.01. (밑줄-인용자)

2) 세태 반영의 수단으로서의 장애

사설시조 중에는 장애를 이용해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거나 풍자하는 작품도 존재하는데, 이는 아래 작품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개야미 불개야미 존등 부러진 불개야미

앞발에 疔腫 나고 뒷발에 종괴난 불개야미 廣陵 십재 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그로 물어 추혀 들고 北海를 건너랴 말이 이셔이다 남아 남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 호소서 (#192)

흔 눈 멀고 흔 달이 저는 독썩이

설이 마른 전풀이 물고 풀썩 뛰어 내뺏다가 그 앞에 도고 잣바지거고
못철오 늘낸 썰썩만정 鈍者 | 런들 瘀血질 썩 하여다 (#5281)

위의 두 작품은 모두 동물의 장애를 활용한 사설시조이다. 첫 번째 작품에 드러난 개미의 장애는 등허리가 부러지고, 앞발 뒷발에 심각한 종괴난 독질자의 상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개미의 장애는 범의 허리를 물고 바다를 건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관 지점에서 결백 호소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이 극대화된다.

문학 작품 속 장애는 대체로 극복되어야 할 결핍으로 취급되어 왔다. <도천수대비가>에서 희명이 딸아이의 개안(開眼)을 바라거나 삼설기본 <노처녀가>에서 노처녀가 혼인한 뒤 장애에서 벗어나게 된 설정들을 보면 장애를 극복해야 할,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놓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개미가 고개를 넘어 범의 허리를 물고 바다를 건너는 상황은 이러한 장애의 극복을 보여주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두 지점을 억지로 결부시켜, 그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곧 자신을 향한 모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폭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주제를 정교하게 드러내기 위해 개미는

잔등 부러지고 앞뒷발에 중기가 나서 신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온전하지 않은 형상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작품은 현실의 부당함을 풍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의 온전하지 못한 몸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꺼비와 파리는 모두 신체적 결함을 가진 존재들로, 두꺼비는 한 눈이 멀고 한쪽 다리를 저는 존재로, 파리는 서리를 맞아 날개를 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기왕의 연구에서 이 작품은 당대 부조리한 세대를 풍자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이러한 세대 반영에 맞닿아 있다고 할 때, 두꺼비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로, 파리를 수탈당하는 백성으로 읽어낼 수 있다.

작품의 풍자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이들의 장애가 이용되는 것인데, 이때 두꺼비와 파리가 보이는 신체적 장애는 상반된 의도로 설정되어 있다. 위정자의 입장에서 백성을 살펴야 할 두꺼비는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는 가해자로 등장하고 이러한 그의 도덕적 결핍은 한 눈이 멀고, 한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반면 이러한 두꺼비의 수탈로 인해 일상의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삶을 감내하고 있는 백성의 삶은 한쪽 날개를 저는 파리의 형상으로 드러나 장애를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두꺼비와 파리는 모두 한 쪽이 상실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도덕적 결함이든 삶의 질의 결함이든 결함을 가진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반쪽의 존재로 이해됨을 보여주는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한 다리를 절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풀떡 뛰다 자빠지는 두꺼비의 모습은 장애를 이용해 희극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설시조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희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왕의 연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³⁰⁾ 특히 현실 세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장애를 희화화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음 작

품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중놈은 승년의 머리털 잡고 승년은 중놈의 상토 쥐고
 두 쓰니 맛밧고 이 윈고 저 윈고 작자공이 천논디 못 쇼경이 구슬 보니
 어디셔 귀머근 병어리는 외다 올타 흐느니 (#4441)

신흥스 중놈이 암감골 승년에 머리치 쥐고
 암감골 승년니 신흥사 중놈에 상투을 잡고 하나님 전에 등장갈제 조막손이
 육갑 씹고 씹장이는 장초맛고 안짐방니 탁견호고 장안관슈 좀상니세고 병어리
 는 판결스헌다

길 아리 목업는 돌부쳐는 양천디쇼 (#2950)

위의 두 예문은 얼토당토 않은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사설시조이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중과 여승이 다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서로 네가 틀렸다고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독자는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삭발하여 머리카락이 없을 중과 여승이 머리채를 잡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황된 설정은 이어지는 소경과 귀먹은 병어리의 상황을 통해 심화된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곳, 즉 중과 여승의 싸움을 ‘보고’, 귀먹은 병어리가 상황을 ‘듣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말하며’ 참견하는 황당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의도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모순된 현실을 고발하는 것에 있다. 세태 풍자라는 주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작품에서는 장애의 희화화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문학적 효과를 더욱 정교하고 강력하게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이런 설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제기능

30) 이형대(2014), 앞의 논문, 266쪽.

을 하지 못하는 손을 가진 조막손이 육십갑자를 손으로 헤아리고, 등이 구부러진 곱추가 긴장한 사람을 끌라 군사로 뽑던 장초를 맡고, 앓은뱅이가 무예의 일종인 택견을 하며 장안의 맹인은 물건을 세고, 병어리는 판결을 내린다. 이런 모순된 상황은 종장의 목이 없는 돌부처가 하늘을 향해 대소(大笑)하는 것에서 정점을 찍는다. 두 작품에 형상화된 장애는 말 그대로 소경이 곳을 보고, 귀먹은 병어리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모순된 상황, 또는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두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장애의 희극성은 다음 설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앞 이야기로 폭발한 웃음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이걸 꺼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자신의 체면을 손상할지도 모른다고 의식했음인지 이런 것이 이런 자리에서 그저 웃자고 하는 것일 뿐이란 점을 다짐처럼 덧 붙이면서 구연을 시작했다.

앓일뱅이하구, 귀머거리하구, 눈먼 봉사하구. 셋이 질[길]얼 가거던. 아 질얼 가다가서루, 귀먹은 늬이, “아 워디서루 징소리가 웅웅 난다.” 그라거던? [청중: 웃음] 그래 귀먹은 늬이 징소리를 알아들을 적이는, 눈은 멀었어두 그 사람이 귀가 더 맑을 겐디 귀먹은 늬이 징소리가 난다구 하거던? 아이 봉사늬이 있다가서, “야, 깃발이 펄펄 논다.” [청중: 웃음] 그라거던? 깃발이 펄펄 논다구. 앓일뱅이가 있다가서, “야, 댁(땃)바람이 가서 구경하자 야.” [청중: 웃음] 아 그래 앓일뱅이가 땃바람이 가면 월마나 걸어갈 기여. 말짱 그 허황한 소리지. [청중: 가두 못 하능계?] 그 얘기가 그렇게, 그거 뿐여.³¹⁾ (밑줄 인용자)

31) 강한행 구연, 〈앓은뱅이·귀머거리·소경〉,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5%89%EC%9D%80%EB%B1%85%EC%9D%B4%C2%B7%EA%B7%80%EB%A8%B8%EA%B1%B0%EB%A6%AC%C2%B7%EC%86%8C%EA%B2%BD&id=POKS.GUBI.GUBI.1_13770&pageUnit=20, 접속일자: 2026.01.05.

위 예문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얇은뱅이·귀머거리·소경〉이다. 설화 속 상황은 이렇다. 얇은뱅이, 귀머거리, 봉사 이렇게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귀머거리가 어디서 징소리가 울린다는 모순된 발화를 한다. 그러자 소경이 깃발이 펄펄 날린다고 앞이 보이는양 말하고, 이에 얇은뱅이는 땃바람에, 즉 당장 가서 구경하자며 서두른다. 이야기 속 상황은 온통 허황된 것 투성이다. 구연자 역시 “말짱 허황된 소리”라며 구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얇은뱅이에서 귀머거리, 다시 봉사로 이어지며 겹겹이 쌓이는 모순된 상황 사이에서 청중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린다.

인용된 이야기 속에 설정된 장애 형상은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데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장애를 우스개거리로 수단화하는 것에 대해 구연자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다짐처럼 덧붙이는” “그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구연자의 거듭된 당부가 이런 점을 짐작하게 한다. 즉, 구연자는 이러한 장애의 희화화가 공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문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설시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시조 속에 등장하는 소경과 병어리, 귀머거리, 조막손, 꼬추 등의 장애 희화화는 그것이 사회적 인식 안에서는 논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작품의 주제 구현과 시조의 연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4. 나가며

본 논문의 목적은 사설 시조를 대상으로 그 안에 형상화된 장애의 양상을 읽어내는 것에 있다. 현재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문학적 형상화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는 한다. 특히 다양한 문학의

영역 안에서 장애 문학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척들을 보인바, 본고 역시 고전시가의 영역 안에서 장애가 형상화된 양상을 살펴보고 싶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대명률직해』와 같은 법 조항을 통해 조선 시대 장애는 사회적 연민의 영역으로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실록의 기사를 통해 그러한 법 조항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애를 돌봄의 대상으로 고려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이어 양반들의 작품 속에 내재화된 장애 형상은 장애를 수단화하기는 했으나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와 다르게 사설 시조 속에 장애는 주로 부정적이거나 온전하지 않은 것, 그래서 배제되거나 희화화되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장애 배제의 형상을 보여주는 작품과 세태 반영 등을 위해 장애를 형상화하거나 희화화하는 작품 등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고는 조선 시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설시조의 장애 형상화가 보이는 양상의 원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홍규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1386쪽.
- 강한병, 〈얇은뱅이·귀머거리·소경〉,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C%95%89%EC%9D%80%EB%B1%85%EC%9D%B4%EC%9D%B7%EA%B7%80%EB%A8%B8%EA%B1%B0%EB%A6%AC%86%8C%EA%B2%BD&id=POKS.GUBI.GUBI.1_13770&pageUnit=20,
 접속일자: 2026.01.05.
- 강혜중, 「신체장애에 대한 조선후기 문인의 인식과 형상화」, 『한국문학논총』 80, 한국문학회, 2018, 65~100쪽.
- 구선정, 「장애인 간 연대를 통한 치유 -〈한후룡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 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59~188쪽.
- _____, 「〈한후룡전〉·〈유화기연〉·〈영이록〉에 나타난 ‘장애인’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42, 고소설학회, 2016, 241~278쪽.
- _____, 「근대전환기 장애인(障礙人)의 재현 양상과 시선 고찰 -〈병인간친회록(病人懇親會錄)〉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3, 이화어문학회, 2024, 101~131쪽.
- 박상영,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2018, 125~166쪽.
-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
- 변재원, 「치유를 바라는 마음-심청전에 관한 장애학적 접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2024, 5~50쪽.
- 신호림, 「소경과 얇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회, 2013, 225~256쪽.
- 이경하,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39~58쪽.
- _____, 「심청의 효 및 장애 관념 비판: 동화 〈청아, 청아, 눈을 떠라〉(2006)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3, 175~202쪽.
- 이영태, 「불구동물 등장 시조와 “靑개고리 腹疾하여 주근 날 밤~”의 해석」,

- 『시조학논총』 30, 한국시조학회, 2009, 301~318쪽.
- 이해진, 「관소리 문학 속 공동체 돌봄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2024, 121~150쪽.
- 이형태, 「사설시조에 발현된 희극성의 육체적 표상들」, 『시가문화연구』 33,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265~292쪽.
- 장영희, 「은유로서의 신체장애:미국문학의 경우」, 『미국학논집』 33-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1, 185~209쪽.
-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문학동네, 2005, 1~215쪽.
- 제하나, 「고전 서사 속 장애 담론의 비장애중심성 탐색:〈한후룡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6, 한국고소설학회, 2023, 241~280쪽.
- 수잔 웬델, 김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21, 1~348쪽.
- 카롤린 엠케,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 다산지식하우스, 2022, 1~271쪽.
- 〈세상에 이런 일이〉 545회, 『SBS』, 2009.06.11.
<https://programs.sbs.co.kr/culture/whatonearth/vod/55716/22000002883>, 접속일자: 2026.01.01.
- 〈(근황공개) 옆드려서 운전하던 슈퍼맨 김인호 씨, 13년 후 근황은?〉, 『우와한 비디오』, 2022.03.19. <https://www.youtube.com/watch?v=5xP5f8YY89U>, 접속일자: 2026.01.01.

ABSTRACT

Aspects of the Figuration of Disability in *Saseol Sijo* and Its Significance

Choi, Ji-hye

This article examines the modes through which disability is represented in *saseol sijo* and, on that basis,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disability representation in literary works. In dictionary terms, disability is defined as “a condition in which a bodily organ fails to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or in which there is a defect in mental capacity.” Historically, however, disability has often been perceived as abnormal or incomplete, and even as something repulsive or fear-inducing. In the realm of vernacular poetry, disability frequently appears as a problematic situation that falls outside the bounds of normative life: examples range from *Docheonsu Daebiga*, which earnestly expresses a desire for the restoration of sight in a blind child, to the gasa *Nocheonyeoga*, which recounts the story of an “old maid” unable to marry due to disability. The *sijo* tradition likewise contains works that figure disability, and a noteworthy point is that all of the texts considered here belong specifically to the *saseol sijo* corpus.

Before turning to a full examination of the patterns and meanings of *saseol sij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erceptions of disability in the Joseon period. First, the Joseon dynasty employed a range of terms to refer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okjilja*(篤疾者), *pyejilja*(廢疾者), *janjilja*(殘疾者), and *bulseongin*(不成人). Records in “*the Seongjong Sillok*” indicat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regarded as socially vulnerable and thus as objects of communal care. Moreover, sources such as Jeong Yak-yong’s “*Mokmin Simseo*” and Park Ji-won’s “*Balseungamgi*” (髮僧菴記) suggest that Joseon society—particularly the yangban elite—exhibited an attitude of refraining from viewing or judging individuals through a distorted lens on the sole grounds of disability. The difficulty

of finding representations of disability in *pyeong sijo* can likely be understood within this socio-cultural context.

By contrast, *saseol sijo* presents a variety of disability figures. Such representations may function as material for humor, become targets of exclusion or ridicule, or serve as a device for reflecting contemporary social realities.

Key Words disability, *Saseol Sijo*, comic effect, exclusion, reflection of contemporary social realities

논문투고일: 2026.01.17.
심사완료일: 2026.02.04.
게재확정일: 2026.02.05.